“부산불교 힘 모아 환경보살의 길 나아가자”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법회 봉행

7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여여정사 녹색사찰 협약 진행
범어사 후원금 전달 통해 응원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지역에서 환경과 생명 돌봄 활동을 이어온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 법회 및 후원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를 비롯하여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공동대표 정관 스님,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행복선원 윤광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과 김창원 운영위원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서울본부 사무총장과 울산, 광주 불교환경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환경보살의 서원을 다짐했다.

행사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후원음악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기념 법회는 △개회 △삼귀의 및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 소개 및 인사말 △녹색사찰 협약식 △축사 △격려사 △상패 전달 △임명장 수여 △후원금 전달 △후원서 작성 순서로 진행됐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부산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바탕으로 2022년 4월 20일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 녹색 사찰 협약식과 녹색 불교 아카데미 사업을 펼치면서 일회용 사용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2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이룬 성과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며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다짐과 결의를 다지며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7월 27일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기념 법회 및 후원음악회’를 봉행했다. 공로상과 감사장을 받은 수상자들과 함께 한 기념촬영.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는 격려사를 통해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산에 올라가면 나무도 보고 꽃들도 보고 또 뛰어노는 다람쥐도 보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 마음까지 상쾌하고 후련하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자연환경이 찌들어지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도 삭막해져가고 있다”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자연과 친해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삭막해진 바람이 파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이날 행사에서 여여정사와 녹색사찰 협약식을 가졌다.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은 “이번 녹색사찰 협약식을 계기로 환경을 보호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부산불교환경연대를 위해 봉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공로상은 1호 녹색사찰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이, 감사장은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봉사상은 황은아 활동가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진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김창원 삼일아이앤씨주식회사 회장을 부산불교환경연대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김창원 운영위원장이 부산불교환경연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활동을 응원하는 시간도 열렸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022년 4월 20일 창립식을 봉행했다. 이후 부처님의 생명 평화 사상을 불교 공동체에서 실현하고 지구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사찰 만들기에 앞장 서왔으며 녹색불교아카데미를 열어 환경활동가를 양성했다. 앞으로 생태방생 운동과 지도자 양성 등을 진행하고 낙동강 세계문화유산 추진, 황령산 지키기, 고리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전법’ 주제 여름수련회

8월 2일~4일, 국제선센터서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 불기2568년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바로 지금 여기, 깨어 있는 삶! 정진과 전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는 군포교와 어린이 전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으며 마음챙김 명상과 월호 스님의 선정쌍수 등 수행정진이 이어졌다. 또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등 각 지역별로 사찰순례 및 문화체험도 이어졌다.

특히 입재식에서 열린 표창장 수여식에서 김경희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류정숙 사무총장이 포교원장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스리랑카 이운 진신사리, 홍법사에 나투다

8월 3일 진신사리 이운 법회
마하매우나워 사원 기증 사리
스리랑카 전통 의식으로 이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8월 3일 경내 일원에서 ‘스리랑카 마하매우나워 사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안 및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마하매우나워 사원이 홍법사에 기증한 진신사리 봉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 주지 삿다위무뜨 스님, 주한스리랑카 대사관 사비트리 파나보크 대사, 재한 스리랑카 불자 및 홍법사 신도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동참했다.


홍법사는 8월 3일 경내 일대에서 ‘스리랑카 마하매우나워 사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 봉안 및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이운의식은 일주문부터 대광명전까지 이어졌으며 기념 법회는 점화를 시작으로 오계 독송, 축하 공연, 축사, 부처님 진신사리 유래 해설, 부처님 진신사리 기증 및 친견 순으로 봉행됐다. 축하 공연은 스리랑카에서 준비한 스리랑카 전통 무용(캔디안 댄스), 한국의 찬불가, 한국 전통 화관무 등이 이어졌으며 양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주지 심산 스님은 “진신사리는 일생에 한번 만나기 힘든 귀한 인연이다. 스리랑카 전통의 사리 이운의식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며 이번 행사를 위해 동참한 스리랑카 청년 불자들의 신심에 감동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 주지 삿다위무뜨 스님은 “한국 안산 마하매우나워 사원을 개원할 당시 심산 스님은 큰 도움을 주셨고 그 인연이 계기가 되어 소중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 불교계와 협력하며 더욱 정진 수행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싱잉볼치유의소리·봉녕사, 명상발전 MOU

8월 5일, 홍법사 경내서

(사)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 스님)와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8월 5일 홍법사 경내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불교 명상 발전과 확장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협약식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 포교국장 능윤 스님, 학감 도연 스님, 율감 선정 스님, 교무국장 여요 스님을 비롯해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싱잉볼치유의소리와 봉녕사는 스님들의 포교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에 공동 노력하고, (사)싱잉볼치유의소리는 봉녕사 승가대학 스님들을 대상으로 붓다볼(싱잉볼) 명상 교육을 진행한다. 앞으로 봉녕사 승가대학은 정기적으로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자격과정을 운영하며 다가오는 11월부터는 봉녕사 학인 스님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붓다볼 명상에 대해 연구하고 체험하며 널리 포교에 활용할 분들이 바로 학인스님들”이라며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널리 운영해 불교명상의 발전과 포교에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은 “불교의 다양한 수행 방법 가운데 소리명상은 그 무엇보다 수승하고 효과가 빠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어 포교의 도구로 큰 장점을 가진다”며 “불교 명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맞춰 붓다볼을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무엇보다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전 스님 〈좋은 건…〉 프랑스판 출간 북콘서트

8월 7일 쿠무다 콘서트홀서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를 출간한 성전 스님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북콘서트는 스님의 책이 프랑스에서 불어로 출간된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명경문화재단(이사장 주석 스님)은 8월 7일 부산 송정동 쿠무다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쿠무다와 함께 하는 성전 스님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나의 글쓰기’를 주제로 성전 스님의 오프닝 미니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부산 혜원정사 회주 원허 스님의 동반 출현 및 격려사가 이어졌다.

성전 스님의 책 〈좋은 건 다 네 앞에 있어〉는 101가지 지혜를 담은 산문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MICRO WAVE DIATHERMY
ARA-880 P
ARA biomedical
내 주치의 의료기가 내곁에~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